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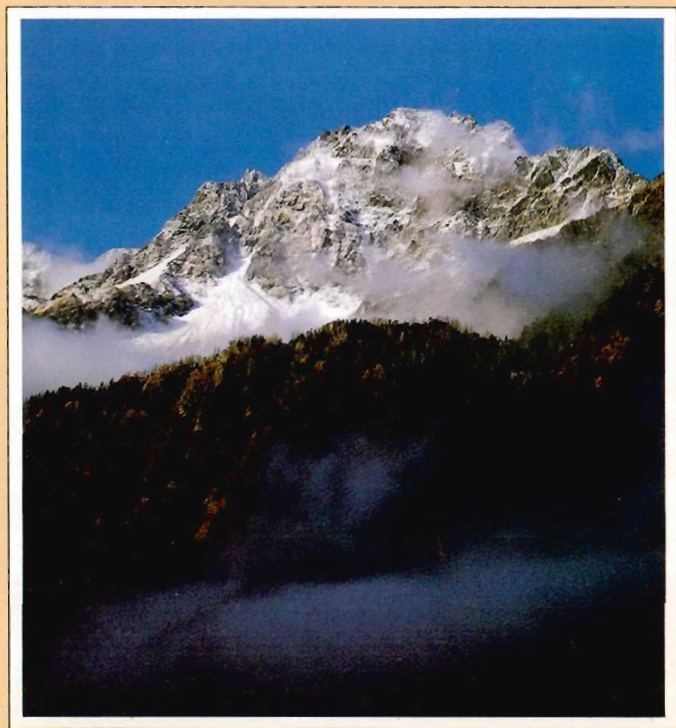
가정예배 안내서

12

1993

충현의 만나

이사야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기도제목

1. 김창인 원로목사님의 건강과 사역을 위하여
2. 당회장 신성중 목사님의 말씀의 능력과 목양을 위하여
3. 부교역자들과 당회원들의 헌신과 능력 충만을 위하여
4. 온 교회와 국가와 개인이 유종의 미를 거두게 하시고 새로운 계획과 비전으로 힘차게 새해를 열게 하소서.
5. 교회학교와 찬양대와 교회의 모든 위원회의 질적, 양적 성장을 위하여
6. 나라와 민족과 위정자를 위하여
7. 세계 선교 사역지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을 위하여



충현의 만나

1993년 12월

『충현의 만나』는 성도들의 가정예배를 돕기 위해
충현교회가 매달 발간하는 간행물입니다.
12월호 집필을 위하여 조동원·이종대·정광욱·장봉생·
김수상·박정규 목사님이 수고해주셨습니다.

이사야서 서론

이사야서의 히브리어 표제는 주인공 예언자의 이름을 따서 예사야후, 또는 그 단축형인 예사야로 붙여졌다. 이 이름은 구원이라는 뜻의 '이사'와 여호와를 뜻하는 '야후' 또는 '야'가 결합된 것으로 '여호와는 구원 이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책 이름처럼 이사야서의 주제는 '심판과 은혜를 통한 여호와의 구원 하심'이며, 본 서의 기록 목적은 한 마디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알려주고자 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사야의 사역은 유다왕 웃시야(BC 767-739) 통치 말기부터 시작하여 요담(BC 731-715)의 시대를 거쳐서 히스기야(BC 715-686) 시대까지 계속되었다. 이사야의 예언 중에는 이사야 자신의 활동 당시에 있었던 일(1-39장)뿐만 아니라 이사야 사후에 있었던 바벨론 포로에 관한 이야기들(40-66장)도 포함되어 있다. 이사야서에는 남은 자 사상, 메시아 사상, 하나님의 거룩성, 여호와의 고난 받는 종과 같은 중요한 신학적인 사상들이 다루어져 있다. 특히 본 서에서 그리스도에 대해 예언한 것을 보면 이사야가 마치 신약의 선지자처럼 보일 정도로 그 예언이 구체적이고 정확하다. 이사야서의 주요 낱말은 '구원'이며 핵심구절은 9장 6절과 53장 6절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과 함께 하는 자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리라 ……」(32:8)

본문은 앗수르 산헤립왕의 침공을 받은 히스기야왕이 취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침공을 받은 히스기야왕은 절망하지 않고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앗수르왕과 그 좇는 온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백성들이 안심했습니다. 앗수르의 산헤립왕의 침공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성에서 흘러나가는 샘물줄기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성을 중수하며, 견고케 하며, 병기와 방패를 만들며, 지휘 계통을 다시 세웠습니다. 이것으로 전쟁 준비가 다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무장입니다. 어떻게 무장합니까? 히스기야왕은 백성들을 향하여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을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는 자는 앗수르 군대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다고 했습니다. 크다는 원어의 뜻은 ‘강력한’ ‘수가 많은’입니다. 강력하신 분이 이스라엘을 반드시 도우시고 대신하여 싸우리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음으로 무장시켰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부딪친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산헤립과 같은 일이 있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크고 강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런 분을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자들입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모신 자들은 “내게 능력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에게 닥친 문제는 우리의 믿음으로 해결됩니다. 우리도 믿음 안에서 능력의 주님을 모시고 사는 승리자들이 되기 바랍니다.

▶ 기도 /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게 하소서.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충현교회가 되게 하소서.

『히스기야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로 ……』(32:20, 21)

산헤립은 히스기야왕과 이스라엘을 향하여 항복할 것을 말합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을 이긴 신들은 열방중에 없었다고 말하며 하나님도 자신이 만든 신들을 대하듯이 마음대로 하려고 했습니다. 산헤립은 자신의 손에서 어느 누구도 구원할 수 없다고 장담합니다.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욕하고 비방합니다. 이러한 외침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했습니다. 히스기야왕의 위로와 믿음의 말보다는 산헤립의 말을 더욱 현실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마음은 놀라움과 괴로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보다 세상의 말에 대하여 더욱 신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잃어버릴 때 우리는 세상의 소리로 인하여 놀라고 괴로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위로와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에게 세상의 말이 들려올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히스기야왕은 믿음의 사람 이사야 선지자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천사는 앗수르 왕의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장관들을 다 진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조롱하던 산헤립도 자식들의 칼에 죽었습니다.

오늘날도 히스기야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주십니다. 고민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십시오.

▶ 기도 /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속히 응답해주소서. 김창인 원로목사님의 기도가 아브라함과 모세의 중보기도와 같이 능력으로 역사하게 하소서.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32:26)

히스기야가 진정으로 사랑해야 할 것은 그의 부가 아니라 그를 부요케 하며 그의 생명을 구하여 주신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왕궁의 보물과 성전의 창고를 부로닥 발라단의 사자들에게 내보임으로써(31절: 왕하 20:12,13; 시 39:1,2) 자신의 교만을 드러내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개인적으로는 병이 들게 되었고 국가적으로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히스기야왕의 모든 보물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게 될 것이고, 그의 아들중에 바벨론 왕의 환관이 될 자가 있을 것이라는 진노의 예언을 했습니다(왕하 20:16-18; 사39:5-7). 이러한 진노는 교만에서 비롯됐습니다. 이 교만함은 한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백성들이 뉘우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유보되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왕은 부와 영광이 극에 달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회개한 자들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한 자에게 창고가, 외양간이, 성읍들이 점점 부해지는 복을 주십니다. 또한 그들의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교만함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문을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 보답하는 일입니다.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받는 하루가 되기 원합니다.

▶ 기도 /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당회장 신성종 목사님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끝없이 부어주소서.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명한 일 곧 모세로 전한 ……』(33:8)

본문은 므낫세의 우상숭배 정책으로 인하여 모든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배교하는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도록 택함받은 자들이 이방 나라들처럼 무지와 불신앙의 수준으로 떨어져버린 것입니다. 이것을 본문에서는 악행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6절). 이것이 세상 죄악의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엄위하심과 거룩하심을 모르고 사는 자들은 악하며,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을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왜곡된 종교 현상이 우상숭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상숭배로부터 비롯된 사회질서나 규례는 비윤리적이고 무원칙적이며 상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상숭배 자체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멸시, 모욕하는 행위이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고귀하게 지음받은 인간이 스스로 피조물의 형상을 섬기는 비참하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므낫세의 피임(9절)에 의하여 야기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스려야 할 통치자의 실패가 유다왕국의 몰락의 중요 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므낫세는 왕의 권위를 사용하여 모든 백성을 사악한 우상숭배의 길로 미혹시켜 범죄하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과 나라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한 사람 때문에 우상숭배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의 가정이거나 나라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의 권위가 더 높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먼저요, 하나님의 말씀이 표준이 됨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우리의 가정과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거하는 가정과 나라가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우상숭배의 현장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 기도 / 하나님 말씀의 역사가 있는 가정과 나라가 되게 하소서. 충현의 성도들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말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여 행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²하나님 앞에 크게 겸비하여 기도한고로 ……₃(33:12-13)

우상숭배가 계속됨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과 므낫세왕의 행한 일을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므낫세왕과 이스라엘에게 환난이 임하게 했습니다. 이 환난은 앗수르의 침공을 받고 나라가 위기 가운데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므낫세왕은 스스로 겸비하여 열조의 하나님을 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구원하시어서 왕위를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이러한 심판과 구원을 몸소 체험한 므낫세는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께서 참된 신이심을 뼈 속 깊이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의 결과로 말미암은 생명의 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깨달음이 있게 됨으로써 비로소 우상숭배가 얼마나 어리석고 부질없는 악한 것인가를 분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깨달음 위에 므낫세왕은 적극적으로 우상타파 정책을 실시하게 되었고 의롭고 평화로운 국가 건설을 위해 국방을 튼튼히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므낫세왕은 자신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역사에 기록하게 했습니다. 기도함으로 이루어진 일들을 후대에 전하기 위하여 기록한 것입니다. 나라의 흥망성쇠와 역사까지도 뒤바꾸어 놓으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범한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고 회개하기만 하면 긍휼함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해주십니다. 기도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것을 초월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 기도 / 기도의 응답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알게 하소서.
교역자들을 영육간에 강전케 하시어 말씀의 준비와 양떼를 돌볼 때 조금도 피곤치 않게 하소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길로 ……』(34:2)

요시아의 종교개혁은 예루살렘에서의 개혁(왕하 23:4-7), 유다 전역에서의 개혁(왕하 23:8-14), 북방 이스라엘에서의 개혁(왕하 23:15-20)으로 나뉘지고 개혁의 중심은 바알과 아세라상을 부수는 일입니다. 그 신상을 불살라 가루로 만들어서 우상숭배자들의 무덤에 뿌렸습니다. 이것은 우상숭배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의 개혁은 히스기야왕 때보다 더욱 철저했습니다. 그는 솔로몬시대부터 있었던 모든 우상과 산당을 철저히 부숴버렸습니다. 이처럼 요시아왕이 철저한 종교개혁을 하게 된 동기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판단기준에서의 정직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이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은 정직한 분이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시 119:137).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정직하게 창조하셨습니다(전 7:29). 이러한 이유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여야 합니다. 성경은 사람이 정직할 때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만들고(시 11:7), 하나님의 의를 누리게 만든다(시 36:10)고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좋은 것을 누리게 만들고(시 84:11), 흑암 중에도 빛이 일어나게 만든다고 합니다(시 112:4).

요시아왕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함으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단호하게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의 하나님 섬김은 성전을 정결케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종교개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 행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단호하게 끊어버림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들이 됩시다.

▶ 기도 /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개혁이 일어나게 하소서. 모든 당회원들의 하시는 일들을 축복하시고 섬김의 본이 되게 하소서.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치 아니하였으므로 ……』(34:21)

요시아왕은 유다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한 사실을 율법을 통하여 깨달았을 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여선지자 홀다에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이러한 물음에 대하여 담대하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가 전하는 상대가 비록 국왕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전했습니다. 그것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곧 유다백성들에게 재앙의 저주가 내릴 것이라는 예언이었습니다. 이스라엘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으므로 하나님의 분노를 격발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저주의 말보다는 축복의 말을 듣기 좋아하고 저주의 말은 귀를 막고 거부해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홀다는 저주의 말을 그대로 가감없이 전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세례 요한이 헤롯왕의 불륜을 직고하며 규탄했던 것과 같습니다(마 14:4). 이들은 자신의 목숨을 돌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이것이 전도자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전도자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귀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달콤한 말에 젖어있습니다. 우리 주위를 돌아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가 곧 임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곧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말보다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말을 더 좋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보고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홀다 선지자와 같이 어느 누구에게든 바로 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 기도 /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고 이 시대를 분별하게 하소서. 교회의 모든 직원들에게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는 마음을 부어주소서.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31절)

유다왕국의 16대 왕인 요시아는 그 시대에 보기 드물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았던 왕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신앙을 가졌고 유다종교를 개혁하였으며 성전을 수리하고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한 왕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비결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첫째로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한 왕이었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그들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었던, 말씀을 사랑한 왕이었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둘째로 그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며 하나님의 언약(30,31절)을 백성들이 좇게 한 왕이었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였으며 백성이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33절).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비결 세 가지를 배웁시다.
①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시다. ② 여호와께 순종합시다. ③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맙시다.

▶ 기도 /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종이 되게 하소서. 교회의 모든 위원회가 성령충만하여 하나님 중심으로 일을 결정하며 추진하게 하소서.

『요시아가 그 모인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삼만과 수소 삼천을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매』(35:7)

성전청결 작업을 마친 후 요시아는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유다백성들과 함께 1월 14일에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것은 사무엘 선지자 이후에 준수해오지 못했던 행사였습니다. 오랫동안 행하지 못했던 이스라엘백성이 이같이 유월절을 준수할 수 있었던 것은 성전 수리작업을 하는 도중에 발견한 율법책을 보고 그 규례를 알았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14-21절).

그는 유월절 어린 양을 준비했고 유월절 행사를 임의로 변경하지 않고 이미 정해진 하나님의 규례대로 준행하였습니다. 우리도 어떤 일을 행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야 합니다. 또한 요시아왕이 유월절을 잘 지키기 위해서 자기 소유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삼만 마리, 수소 삼천 마리를 내놓아 유월절 제물을 삼게 하자. 이것을 본 신하들, 성전 지도자들, 레위족장들도 많은 양의 제물을 내어 놓았습니다. 이렇게 하여 훌륭하고 성대하게 유월절을 지킨 것입니다. 자기의 소유를 바쳤다는 것은 그의 신앙이 이기적이거나 개인주의적인 신앙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생각하는 신앙이라는 선한 모범을 보인 것입니다.

우리는 요시아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신앙을 가지조 이기적이며 개인주의적인 신앙의 타성에서 벗어나십시오.

▶ 기도 / 이기적인 욕심을 버리게 하소서. 각 교구일꾼들이 새신자들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주의 사랑으로 섬기게 하소서.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변장하고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므깃도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35:22)

유다를 개혁하여 성전을 수리하며 유월절을 잘 지키던 요시아왕이 39세의 젊은 나이로 죽게 되는 장면이 본문에 나옵니다. 그는 전투에서 화살을 맞고 죽게 됩니다. 이 전투를 갈그미스전투라고 부르는데 요시아가 왜 전투에서 죽게 되었는가를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갈그미스전투는 요시아가 관여하지 말아야 하는 전쟁이었습니다. 이는 애굽과 바벨론 사이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러한 전투에 요시아왕이 병력을 동원하여 전투에 참가한 것이 그의 실패의 큰 원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시아에게 애굽왕 느고를 통하여 전쟁에서 손을 떼라는 통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요시아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억지로 전쟁에 참가하려고 변장을 하여 싸움터에 나갔습니다. 결국 그는 스스로 자신의 무덤을 파고 말았습니다. 화살에 맞아 중상을 입고 도망치다가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위하여 많은 일을 했지만 그 업적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에게 경고를 하지만 계속 자신의 뜻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징계를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요시아의 죽음을 통하여 값진 교훈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 여기는 자에게는 죽음과 파멸이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히 여깁시다.

▶ 기도 /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소서. 각 찬양대원들의 삶을 도우시사 입술의 찬양과 삶이 일치하게 하소서.

『여호아긴이 위에 나갈 때 나이 팔세라 예루살렘에서 석달 열흘을 치리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36:9)

본문은 유다 말기의 여러 왕들이 나오는데 모두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왕이라고 하였습니다. 17대 왕인 여호아하스는 23세에 왕위에 올라 예루살렘에서 삼개월간 다스렸습니다. 삼개월이란 짧은 통치기간이 지난 후에 애굽왕 느고에 의해 애굽으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여호아하스의 애굽에서의 유배생활은 예레미야의 애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렘 22:10-12). 애굽왕 느고에 의해서 18대 왕이 된 여호아김은 25세에 왕이 되었으며 예루살렘에서 11년을 통치하였습니다. 그도 역시 바벨론의 포로되어 그후 예루살렘 문밖에 던지우고 나귀와 같이 매장을 당했습니다(렘 22:18, 19). 그의 뒤를 이어 유다 19대 왕 여호아긴이 8세에 등극하여 100일간을 다스렸습니다. 그도 역시 여호아김과 같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이와같이 유다의 왕들이 포로가 되어 잡혀가게 된 이유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기 때문입니다(5절, 9절). 그들은 하나같이 가증한 일을 하였고(8절) 하나님의 결을 떠났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유다 말기의 왕들의 비참한 최후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유다말기의 왕들은 하나님보다 애굽과 바벨론을 더 의지하였기 때문에 악을 행한 것입니다. 우리도 애굽과 같은 세상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가 됩시다.

▶ 기도 /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소서. 모든 교회학교 교사들이 어린 소자 하나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며 양육하게 하소서.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와 말씀
을 일러도 그 앞에서 겸비치 아니하였으며』(36:12)

유다의 마지막 20대 시드기야 왕은 여호야김의 동생으로 19대 여호야긴
의 숙부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는 조카 여호야긴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 왕위에 오른 왕이었습니다. 그때 나이
21세였으며 11년간의 마지막 왕조에 막을 내린 비운의 왕이었습니다.
그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 왕위에 올랐지만 소위 반(反)바벨론파
에 속했습니다. 그가 반(反)바벨론파에 속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
는 궁중의 수뇌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바벨론에 동조하지 말라고 강권했
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참 선지자인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에 순종
하라고 하셨으나 그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믿었
습니다. 결국 예루살렘은 느부갓네살의 군대에 의해 침공을 당하여 BC
586년에 완전히 나라를 빼앗기는 비운을 맞이하였습니다. 시드기야도
두 눈이 뿔히고 결박당한 채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수치를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거짓 선지자에게 넘어가 악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한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는 참과 거짓을 잘 분별
해야 합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거짓을 멀리하고
참 진리의 말씀을 따를 수 있도록 기도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혼란한 이 시대에 참과 거짓을 잘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서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 기도 / 영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소서. 남녀전도회가 본래의 사명에
충성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주의 나라가 날마다 확장되게 하소서.

『바사와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36:22)

하나님께서서는 유다백성들이 범죄할 때에 부지런히 사자들을 보내시어 죄악의 길에서 떠나도록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백성들은 죄악에서 떠나지 않고 우상숭배하며 안식일을 범하는 죄악을 계속 범하였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모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가게 하셨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을 정복할 때까지 그들을 그곳에 머무르게 하셨습니다. 그 기간은 70년이었는데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로 예언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렘 29:10, 33:10-11). 그 동안 유다땅은 경작되지 않아 땅이 안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70년이 지난 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사왕국의 고레스왕을 사용하셨습니다. 고레스왕은 이방나라 왕임에도 불구하고 유다백성에게 조서를 내렸습니다.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고레스왕의 조서를 통하여 역사의 주관자는 분명히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명심합시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영영히 버리지 않으시고 보호하십니다. 우리의 가정과 사회와 민족을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보호하심을 믿읍시다.

▶ 기도 /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소서. 서만수 선교사(인도네시아)의 사역으로 수마트라, 리아우도섬에 있는 개척교회가 부흥하게 하소서.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마는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1:3)

이스라엘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축복된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시고 여러 가지 능력을 보이시며 보호, 인도하신 것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가나안땅에 이끌어 들이실 때까지 하나님을 여러 번 찬양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러 번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알았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머리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거룩과 사랑을 함께 나타내시며 택한 자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채찍을 드셨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채찍이었습니다. 빨리 깨닫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여 그들은 더욱 매를 맞는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택한 백성들을 징계하시되, 죽게 하지는 않습니다. 징계 중에도 자비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루 빨리 사랑과 거룩의 하나님을 바로 알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생활에서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즉 지금 나의 처지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심을 가르쳐주시려고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돌이켜야 합니다.

▶ 기도 / 생활 중에 하나님을 늘 만나뵙게 하소서. 육호기 선교사(독일)의 사역으로 푸랑크푸르트장로교회와 하나우장로교회가 부흥하게 하시며 온 가족의 건강과 특별히 중증이의 건강을 지켜주소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1:18)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녀들을 찾으십니다. 그러나 참된 예배를 원하십니다.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예배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됩니다.

이스라엘백성들은 우상숭배와 시기, 질투, 악의 등을 마음에 품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빠뜨리지 않고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형식적인 이스라엘백성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제물로 드린 짐승의 기름과 피를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때를 지키고 걸르지 않는다는 것으로 할 바를 다했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고 하셨으며 성회와 더불어 악을 행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기도해도 듣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기도하는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즉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거룩한 모양만 흉내내는 것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나 16-20절에서는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깨끗이 하시고 용서하실 뿐 아니라 큰 축복을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들도 형식적이고 의례적으로 예배, 기도, 찬송, 헌금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회개가 앞선 예배가 되도록 주일을 준비하고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 기도 / 회개하고 참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효자, 효녀들이 되게 하소서. 이준교 선교사(이집트)의 사역을 통하여 이집트로 이주해온 200만 수단인들의 영혼을 구원해주소서.

『시온은 공평으로 구축이 되고 그 귀정한 자는 의로 구축이 되리라』(1:27)

이스라엘백성들은 애초부터 그렇게 부패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신실하던 성읍이었고 공평과 의리가 충만하였습니다(21절). 그런데 이제는 영적으로 창기가 되었고 성읍에 살인자가 가득하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지도자들의 부패에 있다고 하십니다(23절). 하나님께서는 뇌물과 사례물을 사랑하고 연약한 자들을 억울한 대로 방치해 둔 부패한 지도자들을 제거하시고 그 후에야 다시 의의 성읍, 신실한 성읍이 되겠다고 하십니다.

잘못되었을 때는 아픔이 있어도 시정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공의가 없으면 아무것도 바로 되어지지 않는다고 지적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있어도 끝내 돌이키지 않는 자도 있을 것이라고 하십니다(28절). 회개하지 않는 악인은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31절).

하나님께서서는 사랑하시는 백성들이 잘못되면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반드시 징계하시고 그 징계에 대한 태도가 바르면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쳐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불공평, 불의가 있는지 살펴보고 있으면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잘못된 것은 아파도 과감히 고치고 징계 후에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감사, 찬양해야 하겠습니다.

▶ 기도 / 징계 후 경히 여기거나 낙심치 않게 하셔서 구원해주소서. 김주경 선교사(이스라엘)의 사역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방문하는 이들에게 복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그들의 상황과 환경과 마음문을 열어주소서.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2:22)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심은 그들에게 이방 풍속이 가득하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상숭배에 빠지는 것은 교만하기 이룰데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상이 하나님보다 더 큰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의지하는 것이 우상이라면 그는 우상을 최고로 생각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최초의 배반자 마귀의 범죄가 바로 교만에서 시작된 것을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교만과 우상숭배는 맥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히 행하는 자를 낮추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교만한 자를 의지하는 자도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자를 따라다니며 아첨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무시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리석게 인간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교만할 때 낮추시고, 교만해진 이방도 낮추시므로 결국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들도 교만한 생각이 들때, 하나님 나라의 관계를 점점해 보아야 합니다. 허망해질 때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을 제하고, 우리의 교만을 회개하며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매일의 삶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도울힘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맙시다.

▶ 기도 / 교만은 접근치도 못하도록 지켜주소서. 김은태 선교사(홍콩)가 사역하는 홍콩총현교회가 중국에 보낼 선교사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함께 하소서.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임이요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화가 있을 것은 그 손으로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3:10, 11)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을 가장 큰 죄악이라고 지적하시면서, 그들이 의지하는 것들을 다 제해버리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양식과 물을 제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줄 생각지 못하고 양식과 물 자체를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오십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공교한 장인과 능한한 요술자를 제해버리겠다고 하셨습니다. 용사와 전사는 국방력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파숫꾼의 경성함이 허사임을 그들은 알아야 했습니다.

잘못된 재판관과 선지자와 장로와 오십부장과 귀인과 모사를 의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더구나 복술자와 요술자를 의지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으면 허망한 우상을 섬기게 되며,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죄악을 범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에서 멀어질 때 사람 눈을 피하여 온갖 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모든 행위대로 보응하십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기도함으로써 올바른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하나님보다 의지하거나 두려워하면 올무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들은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웃에게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나눠주는 성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 기도 /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하소서. 안식령 선교사(수리남)의 안식년 동안에 언어훈련과 새로운 사역을 위한 비전이 형성될 수 있도록 기도 가운데 환상과 말씀으로 인도하소서.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3:13)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생활하는 자는 사람을 미워하는 악을 저지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사람 눈을 의식하고 눈치를 보면서, 사람이 안볼 때는 남모르게 악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의 탐욕과 압제의 죄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사람만 의식하는 지도자는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약한 자들을 착취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들을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하시는 약한 자들을 억울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상류층 여인들은 교만과 사치, 쾌락의 죄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을 책망하여 묘사하시기를 “교만하여 늘인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죽거리 행하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라고 하셨습니다. 사치와 교만, 쾌락추구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는 자들의 또 다른 죄악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더 이상 쾌락에 빠지지 못하도록 그들의 남편이 죽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체의 근본이며, 악을 떠나는 길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에서 떠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마음과 말과 행위를 불꽃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며, 점검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아니함으로써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 기도 / 항상 신전의식을 가지고 살게 하소서. 유병세 평신도 선교사(일본)와 사모님의 사역을 통하여 중·고등학생과 주부들의 성경공부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더 충만히 진행되도록 인도하소서.

“그날에 여호와와 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산은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4:2)

범죄한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소름끼치도록 무섭고 처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파괴를 위한 심판이 아닙니다. 처절한 전쟁의 결과로 남자 품귀 현상이 일어나 여자들은 살아남은 남자에게 속하려고 심지어 중첩의 권리도 서로 가지려고 다투는 모습을 보이게 되겠지만 이것으로 유다의 운명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마치 철저하게 타버린 숲의 재 속에서 새싹이 돋아나듯이 하나님의 소멸하시는 심판의 불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분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방민족들에게는 영원한 형벌로 나타나 다시는 사람이 거하지 못하는 곳으로 파괴시켜 버리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청결한 삶을 시작하게 하는 연단의 불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고 다시 한번 자비를 간구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고 권면합니다(히 12:11).

지금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계신 분이 있습니까? 모든 것이 다 끝났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셨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을 바라보십시오. 징계의 기간이 지나면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의 보호와 영광이 되실 것입니다.

▶ 기도 /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소서. 이기성·박정아 평신도 선교사(호주)의 언어훈련과 현지적응을 지켜주시고 전도의 문을 넓힐 수 있도록 지혜와 영안을 밝혀주소서.

『대저 만군의 여호와와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5:7)

한 농부의 탄식이 나옵니다. 어느 농부치고 흉년을 기대하며 씨를 뿌리는 사람이 없고 나쁜 과실을 바라고 유실수를 심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 농부가 아주 기름진 땅을 사서 정성을 다해 개간하고 최고의 품종인 묘목을 사다가 심었습니다. 짐승이나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 포도원을 망가뜨리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치고 수확하면 좋은 포도즙을 얻기 위해 포도즙틀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하여 삼년 이상을 공들인 결과 포도원은 좋은 포도를 맺지 않고 시고 떨어 먹지 못하는 들포도를 맺었습니다. 농부는 혹시 자신이 무엇을 잘못된 것이 있는가 꼼꼼히 따져 보았지만 농부로서 할 일은 더 이상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그 포도원을 완전히 허물어버리고 다시 시작할 계획을 세웁니다. 이것은 이사야 당시 유대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와 유대 현실에 대한 하나님의 실망을 보여 주는 노래입니다. 유대 사람들을 구속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면서 한 국가로 일으켜 세우신 하나님께서 유대 사람들에게 바라신 것은 하나님의 공평과 의로움을 나타내는 것, 그래서 이방의 빛이 되는 것이었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 유대도 이방 나라들과 전혀 차이가 없이 포학과 폭력이 난무하고 힘없는 백성들의 울부짖음이 하나님께 닿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속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드러운 마음과 서로를 붙잡히 여기는 마음이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맺고 있는 열매는 극상품 좋은 포도입니까, 아니면 쓰고 떨어 아무도 먹지 못하는 들포도입니까?

▶ 기도 / 매일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하소서. 김형선·한영자 평신도 선교사(뉴질랜드)의 문서선교와 외향선교를 위해서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유학생들에게 신앙을 심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소서.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발하시고 ……』(5:25상)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5:30하)

본문은 이사야 당시의 사회악을 7가지로 지적하고 그에 따르는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먼저 탐욕스러운 토지 소유자들을 경고합니다. 사람들은 땅이 많으면 소출이 많고 그것이 자신의 삶을 풍족하게 해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탐욕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짓밟는 사람들은 그 탐욕을 채우지 못합니다. 둘째, 방탕하고 경건치 않는 사람들을 경고합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무너뜨릴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기득권을 빼앗으시고, 힘없는 양민이 자신의 몫을 받으며 절인들이 그들의 재산을 나누어가는 공평한 시대를 이루어주실 것입니다. 셋째, 거만한 자들을 경고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하나님이 있으면 어디 마음대로 해보라고 해’ 합니다. 넷째, 진리를 왜곡시키는 자들을 경고합니다. 다섯째, 교만한 지식인을 경고합니다. 여섯째, 부패한 재판관들을 경고합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토지와 지식, 입법과 사법, 행정의 권세 잡은 악인들이 서로 짜고 서로의 악한 이익을 보장해주면 그들이 대대손손 부귀를 누리며 살 것처럼 느껴지고 바르게 살려는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오래 두시지 않으시고 조만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에게 소망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바라고 이들의 악에 동참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 기도 / 악을 행하는 다수를 좇지 않고 비록 고독할지라도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반열에 서게 하소서. 김철영 평신도 선교사(일본)가 선교를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하나님의 군사로 준비되게 하소서.

『.....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6:8)

웃시야왕은 내치와 외치, 국방과 경제 모든 면에서 유대를 중흥시킨 위대한 왕입니다. 그런데 이 왕은 자신의 노력으로 나라가 부강해지자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의 처벌로 문둥이가 되었다가 죽었습니다(대하 26:16-21). 웃시야왕의 죽음은 정치적으로 앗수르가 흥하고 유대의 세력이 기울어가는 분기점이 된다는 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의 꿈이요 희망이었던 웃시야가 죽었을 때 이사야는 참담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이사야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이사야가 부정한 자신을 한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천사 하나를 보내서 재단 숯불로 그의 입을 정하게 하시고 네 죄가 사하여졌다고 선언하십니다. 여기에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사람인 웃시야에게 희망을 걸고 있었던 이사야는 그가 죽었을 때 깊은 좌절에 빠졌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어섭니다. 이사야는 기도중에 희망은 하나님께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신이 웃시야를 대신하여 일할 하나님의 일꾼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희망을 걸고 있습니까?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은 웃시야같은 위대한 인물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기 위해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 기도 / 하나님 앞에 기도로 깨어 있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부르실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소서. 고은빈 평신도 선교사(케냐)의 팀들이 성령으로 연합되게 하시며 현지적응과 언어훈련의 빠른 진보가 있게 하소서.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종용하라 ……』(7:4)

BC 733년경의 정치 상황을 보면, 북왕국 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을 맺어 반앗수르 반란을 일으키면서, 남왕국 유다를 무력으로 위협하여 자신들의 세력에 가담시키려고 하였습니다(왕하 16장, 대하 28장). 그러나 유다의 왕 아하스는 이들과 맞서 앗수르와 동맹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사야는 그의 아들 스알야습을 데리고 아하스왕에게 가서 이스라엘과 아람을 두려워하여 앗수르 왕에게 도움을 청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혼자 힘으로 서라, 이스라엘과 아람은 아궁이에서 타다남은 부지깽이와 같이 아무런 힘이 없는 세력들이라고 합니다. 이사야가 데리고 간 아들은 이름이 스알야습으로 그 이름은 ‘오직 남은 자만이 돌아오리라’는 심판의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었고 또 ‘남은 자로 하여금 돌아오게 하리라’는 희망의 의미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스알야습이란 이름을 통하여 만약 아하스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스라엘과 아람이 망해도 유다는 남은 자가 되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는 약속을 주심과 동시에, 그 두 나라를 두려워하여 앗수르를 의지하면 다 멸망하고 그루터기처럼 남은 자만이 돌아올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아하스는 이사야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만약 의심스러우면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라, 그러면 확실한 징표를 주실 것이다’는 이사야의 충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의지하기를 끝까지 거부합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 두신 희망과 심판, 두 가지 가운데 어느쪽을 택하겠습니까?

▶ 기도 / 세상을 보며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 주소서. 북한선교를 위한 사랑의 의료기구와 분유 전달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며 북한선교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소서.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7:14)

끝까지 하나님께 의지하지 아니하고 징조도 구하지 않겠다고 하는 아하스에게 하나님은 이사야의 입을 통하여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일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고 앓수르에게 의존하려는 아하스왕에게 징조를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얼굴조차 보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마음을 아프게 하는 아하스에게 ‘내가 너를 영원히 떠나겠다’ 혹은 ‘보기 싫다 없어져 버려라’ 하시지 않고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십니다.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인정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감싸 안으시고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불의와는 공존하실 수 없으신 공의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영원히 죽었던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교제하기 위해 주님은 오셨습니다. 세속화된 성탄절, 상업화된 성탄절 분위기에 빠져서 성탄절의 참 의미를 잊어버리지 맙시다. 우리의 불신앙과 배신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따뜻한 가슴으로 영접하고 영원히 주님으로 모시겠다고 새롭게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 기도 /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항상 느끼며 찬송하게 하소서. 이 세상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따라 우리들을 필요로 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게 하소서.

『임마누엘이여 그의 펴는 날개가 네 땅에 편안하리라 하셨느니라』(8:8)

8장부터 13장까지는 유다의 죄로 이스라엘 왕국에 임할 큰 멸망과, 앗수르 왕에 의해 유다 왕국이 겪게 될 큰 혼란을 알려주면서, 그러나 이런 환란과 심판의 어두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위로와 보상이 예비됨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람과 북왕국의 침략으로 두려움과 어두움에 가득찬 아하스는 임마누엘의 징조(7:14)를 보여주면서 승리를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마헬살랄하스바스(=노락이 신속하고 약탈이 급속하다)라는 서판의 징조와 아기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확증하셨고,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아기가 '엄마 아빠'를 부르기 전에 다메섹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앗수르 왕 앞에 옮기게 된다는 말로 위로와 소망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자들이 궁극적으로 패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환난이 아무리 극심하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순수하게 신앙을 지켜 나가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시며 보호자가 되어주십니다. 이런 말씀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고 있는데 이는 그리스도께서 궁극적으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의 종들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징조를 보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고, 위로와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며 이 민족과 가정이 변영의 복을 받아누리기 위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이 됩시다.

▶ 기도 /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가정과 민족이 되어 변영하게 하소서. 사랑부와 에바다부원들에게 크신 주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담대하고 큰 믿음을 허락하셔서 험한 이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소서.

『아굽 집에 대하여 낮을 가리우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 보리라』(8:17)

본문은 관심을 이사야와 그의 제자들 더 폭넓게는 구별된 자들에게 돌려 위로와 경고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이스라엘은 구별된 자들로서 세상과 주술적인 우상에 빠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며 인내해야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이사야는 첫째로, 언약 백성에 대한 경고입니다(11-13). 하나님은 이사야와 그의 제자들에게 유다의 불신앙을 책망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설령 반역자라는 잘못된 판단을 받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청종의 요구입니다(20절). 이사야는 구별된 자들에게 당시의 패역한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묻지 말고 오직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좇으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 거룩한 경외심을 가지고 세상의 어떠한 세력도 두려워할 필요없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임미누엘의 하나님이 오늘날 교회와 함께 하시기에 어떤 세상의 세력도 참된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합니다. 구별된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어렵고 힘든 위기의 상황속에서도 참된 위로와 은총을 베풀어주십니다. 그러므로 구별된 성도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승리와 축복을 위해 순례의 행진을 계속해야 할 것입니다.

▶ 기도 / 세상의 어떠한 역경과 사단의 미혹 속에서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순례자의 길을 가게 하소서. 돕고 있는 개척교회와 미자립교회의 부흥을 수년내에 이루셔서 저들도 연약한 자를 돕게 하소서.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취도다』(9:2)

본문에서는 고통과 흑암으로 가득찼던 이스라엘의 갈릴리땅에 메시아로 인한 기쁨과 자유와 광명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릴리 땅에 비할 큰 빛에 대한 예언은 성육신하신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것에 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마 4:12-17).

본문은 흑암의 땅에 큰 빛이 가져다 준 구원의 큰 기쁨(1-3절)과 구원의 기쁨이 발생하게 된 원인(4-7절)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영적 교훈을 살펴보면 첫째로, 흑암에 땅에 살던 백성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의 강림을 통해서만 참된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둘째로,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등으로 메시아의 신성을 부각시키면서 인류의 구원을 실현시킬 메시아는 필연적으로 완전한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지녀야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탄생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공평과 정의로 보존하시게 된다는 다윗과의 언약은 솔로몬을 통해 부분적으로, 모형적으로 성취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영원한 메시아 왕국에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사단과 죄악으로 인해 고통과 흑암의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메시아 왕국을 건설하시고 오늘도 믿는 자 가운데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섭리하고 계십니다. 구원의 기쁨과 자유를 누리기 위해 주 안에서 승리하는 성도의 가정이 되길 기원드립니다.

▶ 기도 / 우리 가정과 민족이 주님으로 인하여 구원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소서. 충현의 청년들에게 마케도니아의 환상과 비전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 주님을 전하는 일꾼이 되게 하소서.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미혹케 하니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을 당하는도다』(9:16)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둬진 은혜에도 불구하고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부패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완악하고 교만한 북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면서 남 유다가 경성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에브라임과 사마리아의 거민에 대해 심판하셨음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비웃고 악한 길을 고집했습니다.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패역함은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앗수르뿐만 아니라 동맹국이었던 아람과 블레셋까지 동원하여 교만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백성이 모든 면에서 철저히 부패했기 때문에 평상시 고아와 과부에게 풍성히 베푸시던 긍휼과 사랑까지도 거절하시고 계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진노는 더 한층 강해져서 모든 이스라엘백성을 불로 소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서 함께 형제된 이스라엘의 각 지파가 서로 사랑하지 않고 이기적인 욕심을 위해 싸우는 골육상쟁의 비극이 나타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슬픔과 고통으로 가득찬 이 세상은 오직 메시아의 재림을 통하여 완전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교만한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므로 반드시 회개해야 하며, 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서 서로 겸손한 마음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 기도 /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그리스도인의 가정으로서 이웃을 아끼고 사랑하게 하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함과 어루만지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끼며 환난 중에 더욱 감사하게 하소서.

『앗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리라』(10:12)

앗수르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사단의 세력이 쫓겨남은 하나님 나라의 임재와 동일시되기 때문입니다.

불의한 지도자들이 불의한 법령을 제정하여 발포하고, 가난한 자들의 재판을 불공정하게 하고, 의지할 데 없는 고아와 과부에게 약탈하고 토색하는 범죄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이제 분위기를 급격히 전환하여 갑자기 앗수르에 대한 심판을 선언합니다. 앗수르는 하나님의 손에 들린 심판의 도구임을 잊어버리고 교만해졌습니다. 그리하여 허락된 범위 내에서 심판의 임무를 수행하지 않고 세계 제패의 정복욕과 제국주의적 야심에 눈이 어두워 모든 나라들을 닥치는 대로 파괴하고 멸절시키려 했습니다. 거기에는 정복의 성취감에 도취되어 잘못된 자긍심과 자만심으로 자신들이 모든 신들을 능가하는 존재라고 생각하며 살아 계신 하나님 여호와를 무시하는 신성모독죄까지 범했습니다. 이러한 앗수르를 향해 선지자는 그들의 모든 영광이 완전히 소멸될 것과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어진 후에 버림받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들과 국가의 위정자들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바른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여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를 무시하는 범죄를 하여 하나님께 버림받는 성도가 되지 않기 위해 항상 겸손하게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 기도 / 국가의 위정자들과 교회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게 하시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항상 겸손하고 순종하여 사랑받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한 해를 마감하면서 주님 안에서 감사로 유종의미를 거두게 하소서.

『이미 작정되었은즉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10:23)

이사야는 앗수르의 초라하고 비참한 최후와 대조적으로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경험할 큰 회복과 구원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향한 신실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대적이 멸망하는 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구원이 완성될 것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천명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남은 자의 구원을 말씀하시면서 시온에 거하는 백성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시온을 향한 분노를 그치고 이스라엘을 앗수르의 노력과 압제에서 해방시킨다는 약속입니다. 선지자는 이러한 약속을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사사시대에 에브라임 지파가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여 미디안 방백 오렐을 살해한 사건(9:4)과, 출애굽 당시 홍해를 건넌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어 바다물을 합하게 하여 애굽 군사를 수장시킨 사건(출 14:26-31)을 상기시키면서, 하나님께서는 시온을 앗수르의 압제에서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시며 위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자신의 선하신 뜻대로 택한 백성들을 위해 인류 역사를 섭리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앗수르처럼 교만하지 말고 이웃들을 돕고 사랑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하며, 교만한자는 반드시 심판으로 패망하게 된다는 교훈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 기도 / 성도로서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평강의 복을 받게 하소서. 신실함으로 93년에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94년에도 함께 하시어서 더욱 주님을 사랑하게 하소서.

구 역 공 과



성령의 열매

· 찬송 : 172장, 178장

· 성경 : 갈 5:16-26

· 요절 : 갈 5:22,23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 지방의 여러 교회는 바울의 전도를 통해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습니다(갈3:2). 그러나 나중에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 예수를 믿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율법을 지키며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이에 대하여 바울은 다시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얻는 복음을 설명하면서 오직 성령을 좇아 행해야지 육체를 좇으면 안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성령을 좇아 행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1.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

성령을 좇아 행하면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16,18절)

성령과 육체는 서로 어떤 관계입니까?(17절)

육체는 단순히 몸(육신)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거스리는 잘못된 욕심을 말하는데, 이는 영적이기 보다 육적이라는 뜻입니다.

육체의 일, 즉 육적인 것만을 좇아 행할 때에 어떤 생활을 하게 됩니까?(19-21절)

이런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21절)

2.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22,23절)

성령의 열매는 성령께서 우리 속에 맺으시는 열매로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롬 8:29). 그리스도를 닮으려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하며, 성령께서 맺게 하셔야만 가능합니다.

성도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며, 무엇을 자가에 못박았기 때문입니까?(24절)

예수의 사람들

·적 용

1.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성령을 좇아 행합니까, 아니면 육체의 소욕을 좇기를 좋아합니까?
 2. 내가 더욱 맺기를 원하는 성령의 열매는 무엇이며, 그러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

빛의 열매

· 찬송 : 259장, 502장

· 성경 : 엡 5:1-14

· 요절 : 엡 5:9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성도는 어둠에서 밝은 빛으로 인도받은 사람들입니다. 빛은 생명을 상징하며(요 1:4), 진실된 교제를 상징하고(요일 1:7), 어둠을 물리치는 심판을 상징합니다(호 6:5). 즉 성도는 빛 가운데 거하면서 빛의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합니다.

1. 빛의 자녀

우리는 사랑을 입은 자녀로서 누구를 본받아야 하며, 누구처럼 사랑해야 합니까?

(1,2절)

빛의 자녀인 성도가 해서는 안되는 어둠의 일이 무엇입니까?(3-7절)

2. 빛의 열매

빛의 자녀들이 맺어야 하는 빛의 열매는 무엇입니까?(9절)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은 음행과 더러움, 탐욕 등과 얼마나 대조가 됩니까! 성도는 전혀 다른 영적 생활을 하는 사람들임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이전의 생활이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고 후 5:17).

우리는 어두움의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11절)

결국 어두움의 일들은 나중에 다 그리스도의 빛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확신을 가지고 전도해야 합니까?(14절)

· 적 용

1. 내가 예수 믿고 성도가 된 후에 변화된 생활(빛의 열매)이 무엇인지 나누어봅시다.

2. 빛의 열매를 더 많이 맺으려면 어떻게 노력해야 하는지 자기 경험을 말하면서 서로 도움을 주도록 합시다.

성령충만한 성도

· 찬송: 218장, 377장

· 성경: 마 13:18-23

· 요절: 마 13:23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백배, 혹 육십배, 혹 삼십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왕으로 묘사하면서 이 땅에 내려와 하나님의 통치(다스림)을 실현하시는 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는 이 세상에서도 예수님을 통하여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천국에서 완성될 것입니다. 이런 복된 소식(복음)이 여기저기 뿌려지고 있습니다. 내 마음 밭에도 뿌려진 복음이 좋은 열매를 맺도록 좋은 밭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1. 복음의 씨

예수님은 비유로 씨를 뿌린다고 하셨는데, 이 씨는 무엇을 가리키는가?(3,19절)

뿌려진 씨(천국 말씀)는 4가지 종류의 밭에 떨어졌는데 각각 어떤 발인가?(4-8절)

- | | |
|-----------|-----------|
| (1) _____ | (2) _____ |
| (3) _____ | (4) _____ |

2. 열매맺지 못한 밭

(1) 길가 : 씨가 길가에 떨어져서 새들이 와서 먹어버림

(2) 돌밭 :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 뿌리가 없어서 환란

뽑박 때에 넘어지게 됨

(3) 가시떨기

각각 나름대로 밭의 종류가 다르지만 결과적으로 모두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이 공통점입니다. 씨는 열매로 나타나야 합니다. 열매맺지 못하는 씨는 더 이상 씨로서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씨를 열매로 만들어내지 못하는 밭은 정상이 아닙니다.

3. 열매맺은 밭

좋은땅 : 말씀을 듣고 깨달아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라 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좋은 땅으로 열매맺는 밭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적 용

1.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읽거나 듣고 있습니까?

2. 내 마음이 좋은 땅으로 많은 순종과 생활의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는 데에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 찬송: 123장, 125장 · 성경: 눅 2:8-14

· 요절: 눅 2:14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오늘날 성탄절은 그 뜻도 모르는 사람들에 의하여 상업주의, 향락주의로 오염되었습니다. 성도들은 주님께서 오신 의미를 분명히 알고, 올바른 성탄절을 기념하며 기뻐해야 하겠습니다.

1. 좋은 소식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을 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무슨 소식을 전한다고 하였습니다(10절)

복음(福音)은 ‘좋은 소식’입니다. 천사들의 말처럼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천사가 전하여 준 그 좋은 소식(복음)은 무엇이었습니다(11절)

다윗의 동네는 베들레헬을 가리킵니다.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는 표적은 강보에 싸인 아기를 볼 것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목자들은 베들레헬 구유에서 탄생하였고, 강보에 싸여 있는 아기 예수를 보았습니다.(16절)

2. 하나님께 영광, 사람들에게 평화

홀연히 허다한 천군이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한 내용은 무엇일

니까?(13,14절)

지극히 높은 곳(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 함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림으로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뜻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에게 알리시고, 친히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대속해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 함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성도들은 하나님과 평화, 자기 자신과 평화, 다른 사람들과 평화하게 되며,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적 용

1. 성탄절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그 때를 생각하면서,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정리하며 묵상해봅시다.
 2. 이번 성탄절에 나는 무슨 일로 하나님께 영광, 사람들에게 평화 를 전할 수 있을까 한 가지씩 결정하여 발표하고 실천하도록 합시다.
-

열매로 아버지께 영광

· 찬송 : 460장, 505장 · 성경 : 요 15:1-10

· 요절 : 요 15:8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농부가 포도나무를 심는 것은 포도열매를 얻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포도원의 농부로, 자신을 참 포도나무로 비유하셨고 성도는 포도나무에 붙어 참 포도열매를 맺어야 하는 가지로 비유하셨습니다. 결국 성도는 예수님 안에 거하여 열매를 맺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1. 참 포도나무되신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비유하시면서 참 포도열매를 기대하셨지만, 그들은 그렇게 열매맺지 못했습니다(렘 2:21).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어드릴 수 있는 참 포도나무라고 하신 것입니다.

성도는 포도나무의 가지인데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5절)?

열매맺는 과목의 목적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나무는 더 이상 자기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쓸 데 없어 버려질 수밖에 없습니다(6절).

2. 예수님 안에 거하면 맺어지는 열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 분을 믿고 따르는 것이입니

다. 그리고 무엇이 우리 안에 거해야 우리가 구하는 그 열매가 맺어질 수 있습니까(7절)?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분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며, 묵상하고, 그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야말로 열매맺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누가 영광을 받으며,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8절)?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방법으로 그 계명을 지키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므로 그 사랑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계명이란 무엇을 말합니까(요 15:12)?

이제 1993년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올 한 해도 우리를 통해 많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열매맺는 과목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나도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므로 많은 열매를 맺어야 나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성도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해를 맞이하면서 맺어야 하는 열매가 무엇인지 기도하면서 그 분의 도우심을 기다립시다. 아멘!

·적 용

1. 나는 올 한 해에 어떤 열매를 맺었다고 생각합니까?
 2. 내년에는 어떤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

가정예배 안내

■ 예배순서

- 1) 찬 송 다 같 이
- 2) 성경봉독 사 회 자
- 3) 메시지 낭독
- 4) 기 도 다 같 이
- 5) 주 기 도 다 같 이

• 예배 소요시간

약 15분 내외가 적함

• 예배 사회자

가장 또는 가족이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인도

• 찬송과 성경 본문

가정예배 안내서의 해당 일자에 소개된 찬
송을 부르고, 성경 본문을 봉독